

요한의 삼백 열 번째 편지

2022년 6월 30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디모데전서 6:15)

지 난 유월은 감사가 함께하는 달이었습니다.
사진 전시회를 잘 마치고 사역지에 잘 돌아 왔습니다. 사역지에도 사고가 없이 평안하여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터키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이 아닌 터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직은 마스크를 실내에서는 착용하는데, 터키로 오는 비행기에서 손님들은 마스크를 썼는데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 신기했습니다. 체크인 할 때도 피씨알 검사도 없고 터키 도착해서도 피씨알 검사 없이 입국했습니다. 터키에 도착하자 모든 거리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는 것이 별천지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상황을 보니 아직은 확진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유엔에서 코로나를 종료를 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이곳을 지켜 주시고 안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관광객도 늘어서 방문자들이 도시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없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알리를 통하여 갑바도기아의 바실 공동체를 잘 지켜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알리의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게 되어 알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구입한 집을 가보니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을 얻어야 된다고 소식이 와서 기도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재정과 위치 모두를 기도했는데 그

래도 재정과 위치 모두 괜찮은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기를 기도 합니다. 엘리프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종종 정신이 들락날락 한다고 엘리프가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주셔서 간증하며 전도자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부락과 램지를 위해 늘 기도부탁을 드렸는데 부락의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의 회복과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네스와, 보라, 기쁨, 자넬이 방학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개학을 구월 말에 합니다. 그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이번 한국 방문은 사진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십개국의 열네 명이 각각 여섯 점씩 모아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사진전 주제가 “토브와 바라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토브와 복을 주셨다는 바라크입니다. 수백 명이 사진전을 관람했습니다. 방명록도 네 권이나 글을 남겨 주셨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진을 비롯하여 팔십 점이 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들도 놀라고, 자리를 제공해주신 새문안 갤러리에서도 놀라고 모두 감사의 말이 넘쳤습니다. 이번 사진전을 통하여 아직도 미숙하지만 사진가로 첫발을 내딛는 초대 작가가 되고 협회에서 주는 작가증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군티비에서 저희들을 해외 사진 기자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다큐사진이 적었는데 방송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다큐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진을 통하여 얼마나 어떻게 사역에 임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통하여 사역에 연결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은 사진전에 집중하다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특히 사진 전시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블레스유) 유튜브를 통하여 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나톨리아를 중심한 성경지리와 신앙고백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전달해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늘 손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일 가정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방문 중 교회도 방문하고 전시장에서 기도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으로 많이 위축 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실 공동체에서는 디모데후서를 시작했습니다. 역시 사역지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눔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자녀가 무엇인지 이번 디모데 후서를 나누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저희와 알리가 영적인 자녀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서로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열매의 열매를 얻어 풍성하기를 기도 합니다. 먼 훗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달에도 시편 칠십사 편부터 구십이 편까지, 느헤미야 십이장부터 시편 백십구 편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 중에 디모데전서 육장 십일 절부터 십육 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경건이

무엇인지, 왜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있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죽음이 없으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를 이 하나님의 사람, 자녀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손 모음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위하여 계속 손을 모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들이 넘치시기를 손을 모읍니다.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갑바도기아에서 아버지를
무지무지 사랑하는
요한, 한나, 다윗, 토마스, 에스더 드림

6월 감사한 일

- .카파도키아의 안전
- .방문: 선한목자, 정원, 총만한, 일리, 강은, 영화, 해오름.
- .사진 전시회 (5월 21일-6월16일)
- .사진전 내방: 김기창 부부, 중선 본부장 및 총부, 신성욱, 은누리 터사모 팀, 초동친구, 가족, 한나 지인, 송성달 부부, 조봉태, 배상길, 김은숙, 이미경, 박종세, 중선 이사, 변춘석.
- .사역지에 귀국
- .신반포중앙으로부터 선물 받음

바실 공동체

- .알리 집 이사를 아름답게 인도하심
- .그룹 특이 잘 운영 되기를
- .엘리프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울증도 치료되기를.
- .알리, 엘리프, 부락, 렘지, 에네스, 보라, 기젤, 자넬 부락(에스마, 루즈가르, 아자르), 렘지(바삭, 아타벨키)
- .전도(제자)훈련으로 전도와 제자들이 잘 양육되기를

7월의 간구

- .카파도키아의 안전과 평안함
- .요한, 한나 건강을 위하여
- .바실 공동체를 위하여

유튜브 채널 이름(블레스유 BLESS YOU) “복 있는 사람”
<https://www.youtube.com/channel/UCL8s7UzvYPHzu4L1g4DLWQ>